



설문조사

# '참신함' 요구한 국민

## — 14대 총선·본교설문조사 비교분석

14대 총선을 맞이하여 대학주보가 지난 3월 12일 본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34명항으로 이루어졌던 설문조사는 14대 총선 기간중 언론에 관계된 선거법 규정에 따라 14명항만을 분석, 보도할 수 밖에 없었다. (본보 3월 16일자 여론조사면) 이에 14대 총선을 치루고 난 지금, 지난 3월 12일 여론조사를 실시했던 결과중 각 정당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 그리고 정책수행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정당에 대한 평가등 20문항의 결과를 14대 총선 결과와 함께 비교분석 하고자 한다.

“與小野大의 정국을 재현했다”는 이유하나만으로 14대 총선은 국민들에게 실로 커다란 의미를 부여해 주었다. 과반수 의석을 장담하던 민주당은 지역구 116석과 전국구 33석을 합쳐 149석을 차지하는데 그쳤으며 민주당은 지역구 75석과 전국구 22석으로 97석을, 국민당은 지역구 24석과 전국구 7석으로 의외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무소속이 지역구 21석, 신정당은 1석을 각각 차지했다.

이같은 결과를 놓고 항간에서는 3당통합에 대한 불신의 결과라 한다. 이는 다이나인 국민의 진실된 목소리를 올바르게 세우는 평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결과는 미리 예측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역대 선거중에서 가장 투표율이 낮았던 지난 24일 선거는 71.9%의 투표율을 보였는데, 해내 여론조사 결과 ‘투표를 하겠다’는 63.2%의 비율과 ‘그 때의 상황에 따라(11.5%) 하겠다’는 비율을 합한다면 74.5%로 거의 유사한 투표결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학생층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라 하더라도 14대 총선을 실시하기 이전과 총선의 결과를 비교 분석 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 1. 14대 총선과 정당

14대 총선결과 각 정당의 득표율은 민주당(1.6%) 신정당(1.8%) 국민당(17.4%) 민주당(29.2%) 민주당(38.5%) 무소속(11.5%)의 비율을 나타냈다.

본보의 여론조사에서 “투표를 하신다면 어느 정당을 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민주당(14.9%) 신정당(4.9%) 국민당(5.9%) 민주당(25.4%) 민주당(3.9%) 무소속(17.3%) 전국연합(7.6%)의 비율을 나타냈으며 학생들이 투표를 행사하고자 하는 정당은 민주당-민주당 순인 것으로 밝혀졌다.

14대 총선결과와는 상당히 상반된 결과로 나타났는데, 민주당에 투표를 하겠다는 경우는 매우 높았으며 국민당에 투표를 하겠다는 경우는 극히 미미했다. 특히 민주당에 투표를 하겠다는 경

우가 극히 낮은 %를 보였던 반면 실제 총선결과와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점이 특기할만 하다. 다만, 민주당에 투표를 하겠다는 학생들의 의사는 14대 총선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투표를 하고자 하는 정당과는 달리 “어느 세력이 14대 총선에 우세할 것으로 생각됩니까?”에 대해서는 상이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투표를 하고자 하는 정당과 투표에서 우세할 것으로 예측하는 세력이 다르다는 것은 곧 주권행사를 하는 투표행사가 한국 정치사회에 반영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예라 할 수 있다.

국민당에 대해서는 매우 신뢰한다(1.2%) 약간 신뢰한다(13.9%)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25.1%)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49.9%)

민중당에 대해서는 매우 신뢰한다(2.2%) 신정당(0.2%) 국민당(3.7%) 무소속(3.4%) 기타정당(2.0%) 등의 득표를 보다 기뻐한 정당의 승률이 높다는 것을 말한다. 다시말해서 민주당(25.4%), 민주당(14.9%), 무소속(17.3%) 후보자에 득표를 던질 것이라는 의사는 달리 민주당(63.2%)과 민주당(16.2%)이 우세할 것이라는 예상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전조사는 득표결과와 유사성을 띠고 있다. 즉 민주당이 우세할 것이라는 예측은 총선 결과, 민주당이 다른 정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소속 후보자의 상당수 정계 진출은 예상했던 결과와 비슷한 분포를 나타내었다. 국민당이 우세할 것이라는 예측은 다소 차이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4대 총선결과와는 상당히 상반된 결과로 나타났는데, 민주당에 투표를 하겠다는 경우는 매우 높았으며 국민당에 투표를 하겠다는 경우는 극히 미미했다. 특히 민주당에 투표를 하겠다는 경

14대 총선결과와 각 정당의 득표율은 민주당(1.6%) 신정당(1.8%) 국민당(17.4%) 민주당(29.2%) 민주당(38.5%) 무소속(11.5%)의 비율을 나타냈다.

본보의 여론조사에서 “투표를 하신다면 어느 정당을 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민주당(14.9%) 신정당(4.9%) 국민당(5.9%) 민주당(25.4%) 민주당(3.9%) 무소속(17.3%) 전국연합(7.6%)의 비율을 나타냈으며 학생들이 투표를 행사하고자 하는 정당은 민주당-민주당 순인 것으로 밝혀졌다.

14대 총선결과와는 상당히 상반된 결과로 나타났는데, 민주당에 투표를 하겠다는 경우는 매우 높았으며 국민당에 투표를 하겠다는 경우는 극히 미미했다. 특히 민주당에 투표를 하겠다는 경

14대 총선결과와 각 정당의 득표율은 민주당(1.6%) 신정당(1.8%) 국민당(17.4%) 민주당(29.2%) 민주당(38.5%) 무소속(11.5%)의 비율을 나타냈다.

본보의 여론조사에서 “투표를 하신다면 어느 정당을 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민주당(14.9%) 신정당(4.9%) 국민당(5.9%) 민주당(25.4%) 민주당(3.9%) 무소속(17.3%) 전국연합(7.6%)의 비율을 나타냈으며 학생들이 투표를 행사하고자 하는 정당은 민주당-민주당 순인 것으로 밝혀졌다.

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불만은 곧 14대 총선 결과에서도 밝혀졌듯 與小野大를 재현 시킴으로써 국민들의 소중한 한 표가 무엇인가를 곱씹어 볼 수 있다.

13대 총선 이후 잃었던 巨野를 되찾으려한 ‘통합민주당’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한다(5.1%) 약간 만족한다(42.0%)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22.4%)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21.5%)고 함으로써 ‘통합민주당’에 대해 더 많은 만족점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7석의 의석을 확보한 통합민주당이 14대 총선에서 승리했다고는 하나 만족도가 그리 높지 않다는 점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

14대 총선을 맞이하여 정치의 새바람을 일으키겠다는 ‘신정당’의 대두’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한다(1.5%) 약간 만족한다(29.0%) 별로 만족하지

14대 총선결과와 각 정당의 득표율은 민주당(1.6%) 신정당(1.8%) 국민당(17.4%) 민주당(29.2%) 민주당(38.5%) 무소속(11.5%)의 비율을 나타냈다.

본보의 여론조사에서 “투표를 하신다면 어느 정당을 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민주당(14.9%) 신정당(4.9%) 국민당(5.9%) 민주당(25.4%) 민주당(3.9%) 무소속(17.3%) 전국연합(7.6%)의 비율을 나타냈으며 학생들이 투표를 행사하고자 하는 정당은 민주당-민주당 순인 것으로 밝혀졌다.

14대 총선결과와는 상당히 상반된 결과로 나타났는데, 민주당에 투표를 하겠다는 경우는 매우 높았으며 국민당에 투표를 하겠다는 경우는 극히 미미했다. 특히 민주당에 투표를 하겠다는 경

14대 총선결과와 각 정당의 득표율은 민주당(1.6%) 신정당(1.8%) 국민당(17.4%) 민주당(29.2%) 민주당(38.5%) 무소속(11.5%)의 비율을 나타냈다.

본보의 여론조사에서 “투표를 하신다면 어느 정당을 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민주당(14.9%) 신정당(4.9%) 국민당(5.9%) 민주당(25.4%) 민주당(3.9%) 무소속(17.3%) 전국연합(7.6%)의 비율을 나타냈으며 학생들이 투표를 행사하고자 하는 정당은 민주당-민주당 순인 것으로 밝혀졌다.

14대 총선결과와는 상당히 상반된 결과로 나타났는데, 민주당에 투표를 하겠다는 경우는 매우 높았으며 국민당에 투표를 하겠다는 경우는 극히 미미했다. 특히 민주당에 투표를 하겠다는 경

14대 총선결과와 각 정당의 득표율은 민주당(1.6%) 신정당(1.8%) 국민당(17.4%) 민주당(29.2%) 민주당(38.5%) 무소속(11.5%)의 비율을 나타냈다.

지역별 정치·사회의 민주화와 정당

지역	민자당	민주당	국민당	신정당	무소속	민중당	전국연합
서울	4.8	33.3*	4.8	12.7	1.6	34.9*	7.9
경기	1.8	33.9*	1.8	16.1	10.7	16.1	19.6
강원		8.3	16.7	25.0*	8.3	33.3*	8.3
충남	4.2	20.8	8.3	25.0*	4.2	25.0*	12.5
충북				20.0	20.0	40.0*	20.0
경남		28.9*	8.9	11.1	11.1	37.8*	2.2
경북		18.8		25.0*	6.3	37.5*	12.5
전남	3.2	51.6*				38.7	6.5
전북		37.5				50.0*	12.5
제주	40.0*			20.0		40.0*	

지역별 경제성장률과 정당

지역	민자당	민주당	국민당	신정당	무소속	민중당	전국연합
서울	17.9	28.6*	25.0*	5.4	1.8	16.1	5.4
경기	20.8	18.9	22.6*	9.4		13.2	15.1
강원	25.0	16.7	25.0*	8.3	8.3	8.3	8.3
충남	34.8*	17.4	4.3	4.3	13.0	13.0	13.0
충북	16.7		33.3*		16.7	16.7	16.7
경남	18.2	15.9	34.1*	13.6	9.1	9.1	
경북		12.5	18.8	12.5	12.5	31.3*	12.5
전남	9.7	48.4*	12.9			22.6	6.5
전북	37.5*	12.5				25.0	25.0
제주	60.0*	20.0					

필요한 정당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경제사회의 핵심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경제성장률과 안정’에 대해서는 민중당(10.5%) 신정당(4.6%) 국민당(15.4%) 민주당(15.4%) 민자당(13.7%) 무소속(2.9%) 전국연합(6.6%)으로 국민당과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높음으로 나타났다. 다른 항목과는 달리 민자당(13.7%)이 경제적 안정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한편 수입개방 압력에 따른 ‘농촌 살려내기 운동’이 진척되고 있는 지금, ‘농업육성’을 보다 잘 해낼 수 있는 당은 민중당(22.7%) 신정당(4.4%) 국민당(3.7%) 민주당(2.7%) 민자당(4.1%) 무소속(5.1%) 전국연합(6.6%)으로 나타났다. 민주당과 신정당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신정당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신정당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한편 민중정당의 제도권 정치(선거) 참여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매우 만족한다(28.8%) 약간 만족한다(38.5%)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13.2%)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7.6%)는 응답과 같이 학생 유권자의 높은 만족도에 불구하고 의석확보나 2% 이상의 유효투표에 실패한 민중당과 공명민주당 2개정당이 등록취소 되었다. 그러나 타선거와는 달리 민중정당의 득표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평가할 수 있기에 차기 선거의 경우 민중정당 참여 여부에 초점이 맞추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4. 14대 국회의 과제와 정당 한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생

3당통합을 우선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비해 본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이 경제성장률과 안정, 교통, 주택난 해결에서 다소 높은 순위를 나타내고 있다는 상반된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집권정당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의 결과가 아닌가 하는 학생유권자 의식의 단면을 엿볼 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

본보는 특히 이번 설문조사에서 학생들이 가장 신뢰하는 정치인이 누구인가를(개방형 설문)를 알아본 결과 총 410명의 응답자 가운데 93명이 ‘신뢰하는 정치인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나 노무현(32명), 박찬종(20명), 홍사덕(13명), 김대중(12명), 백기완(10명), 이철(9명), 전국연합 후보자(7명), 이종찬(5명), 김동길(4명) 등을 꼽았다. 이외에도 노태우, 정대철, 정주영, 장기표, 이부영, 봉두원(각각 1명) 등을 신뢰한다고 하기도 하였다. 신뢰하는 정치인에 대한 설문조사 중 특기할만한 사실은 14대 총선 결과 노무현이 허삼수 의원에게 자리를 내주었다는 점이다. 신뢰도에서는 1순위를 달린 노무현이 낙선의 고배를 마실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이따기만한 질문은 부산에서의 민주당 바람을 차후 대통령 선거와 연관지을 때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14대 총선 결과 ‘그 인물이 그 인물’이라는 평가를 면치 못하고 있는 노무현, 신뢰하는 정치인이나 ‘그 인물이 그 인물’이라는 평가 밖에 내릴 수 없는 지금의 현실. ‘그 인물이 그 인물’이 아닌 ‘그 인물이 바로 이 사람’으로 평가가 될 수 있는 정치풍토를 바란다는 것은 요원한 소망인지, 바로 오늘과 내일을 살아갈 우리네 삶속에서 명각화해 볼 것이다. <여론조사부>

## 여소야대의 구도개편·내각책임제 도입에 반대의견(67%) 신뢰하는 정치인 노무현, 박찬종·대다수는 ‘인물없다’

0%)고 응답함으로써 대체로 국민당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러한 신뢰점수에도 불구하고 국민당이 상당한 승을 얻었다고 한다면 이는 학생유권자들이 아닌 기성세대 유권자의 투표결과라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3. 정국변화 요인 만족도 정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되는 여러가지 정치적 변화요인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3당통합(靑민주당)’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3.4%) 약간 만족한다(8.0%)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7.8%)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72.2%)는 의견을 나타내었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72.2%)’는 응답율에서도 알 수 있듯이 巨野에서의 巨變의 변화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가지

신뢰한다(20.0%) 약간 신뢰한다(34.6%)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20.2%)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12.0%)고 함으로써 학생들은 이를 가장 많이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제대국을 부르짖는 국민당의 대두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한다(1.7%) 약간 만족한다(12.9%)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26.6%)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48.5%)고 응답함으로써 경제계의 정치진입에 대해서도 만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결과 역시 신뢰도와 마찬가지로 총선의 결과와는 많은 차이점을 지니고 있어 학생유권자의 국민당에 대한 선호도는 매우 낮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4. 14대 국회의 과제와 정당 한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생

3당통합을 우선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비해 본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이 경제성장률과 안정, 교통, 주택난 해결에서 다소 높은 순위를 나타내고 있다는 상반된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집권정당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의 결과가 아닌가 하는 학생유권자 의식의 단면을 엿볼 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

# 100만송이 화려한 튜립 꽃밭속에서 사랑을 고백해 보세요!

기간: 4월 1일 ~ 5월 5일

고흐의 강렬한 미술세계와 치즈의 향긋한 맛이 함께 어우러지는 풍차와 튜립의 나라, 네덜란드 — 그 화려한 축제가 자연농원으로 찾아왔습니다. 100만송이 화려한 튜립의 대항연, 자연농원 튜립축제 — 네덜란드 정취 물씬 풍기는 자연농원에서 아름다운 사랑을 고백해 볼까요? 튜립의 꽃말은 “사랑의 고백”이래요.

**마치 네덜란드에 온것 같아요.**

네덜란드 민속춤페스티벌 (1일 4회공연) 민속의상의 남녀들이 선보이는 멋진 민속춤페스티벌.

네덜란드 음식축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즐거운 시간

네덜란드 기념품전 네덜란드 민속인형, 나막신, 도자기, 각종 수공예품 등 판매

네덜란드 풍물사진전 튜립, 풍차, 민속의상 등의 풍물을 사진으로 전시.

자글러 공연 (1일 4회공연) 요술장이 아저씨의 신기한 묘기.

거리의 화가 거리의 화가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그림으로 담아드립니다.

**가면농원 튜립축제**

튜립은 사랑의 고백이래요. 애뜻한 사랑을 고백하고 싶으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겐 사랑이란 어색한 말보다 한송이의 튜립을 선물하세요. 튜립의 꽃말은 “사랑의 고백”입니다.

본 행사는 「네덜란드대사관」, 「KLM 네덜란드항공사」, 「네덜란드 국제화해 구급협회」의 공식후원으로 진행되는 정통 네덜란드 축제입니다!

**이런 즐거움도 놓칠 수 없죠!**

세계 영원한 수수께끼 — **미이라전** **핏, 조심하세요! 5천년 신비의 미이라가 깨어날지도 모르니까요.**

감쪽같은 기상천외의 세계 — **민기야 민기야!** **엇 이럴수가! 박물관** **안보고는 믿을 수 없는 신비의 세계 —**

이벤트는 꼭 타워야지.

**화제만발 쇼스** 21m 공중에서 360°로 회전하는 짜릿한 쇼스.

**특별기획행사**

행사명	일시	장소	출연자
하이틴 톱스타 페스티벌	4월 12일(일) 12:30~14:30	자연농원 야외무대	이선희, 이상우, 심신, 강수지 등 인기가수 출연
MBC 여성시대 신춘편지쇼공개방송	4월 19일(일) 13:00~16:00	자연농원 야외무대	진행: 정현용, 손숙 (출연: 현철, 노사연 등 인기가수)
MBC 시청자 영상촬영대회	5월 3일(일) 10:30~17:00	전역	(우수작은 TV로도 방영합니다)

**문의처** (02)745-0482, 7094 (안내전화), (0335)30-3302~3 (용인) (0652)85-7388 (호남영양소), (051)866-6611 (영남영양소)

**교통편** **서울지역**: 금정관 741-2201 (동대문 이순전호텔 옆), 동국대관광 753-0011 (시정암), 대원관광 764-7788 (종로5가), 스마관광 537-8012 (뉴교인), 티미관광 703-5858 (용산티미남), 경관관광 739-0011 (광화문), 천일고속관광 735-1001 (광화문)

**수원·인천지역**: 뉴동성관광 45-3700 (수원역앞), 세진관광 438-7600 (인천시민회관앞), 수원역앞에서 600번 차차, 66번 시내버스 수시승차